

세계의 도시들로부터 만나는 사회적경제

2013.11.12 | 이수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2013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상상하라! 협동의 세계’ 라는 주제로 서울을 비롯하여 퀘벡, 몬트리올, 볼로냐, 교토, 요코하마, 퀘존 등의 세계 도시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샹티에, 레가쿱, 소셜트레이더스, 그룹에스오에스 등의 민간단체가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과 전망을 나누는 자리이다.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화)~7일(목) / 서울특별시 신청사

주최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 공동조직위원회

제1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렸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주, 캐나다 퀘벡주 등 사회적경제의 대표 도시와 레가코프(Legacoop), 샹티에(Chantier), 로컬리티(Locality) 등 사회적경제의 대표 민간단체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¹⁾

한국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에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서울도시농업, 아이쿱생협, 씨즈,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성공회대학교, 한신대학교, 윤리적패션네트워크, 서울지역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석하였다.

첫날인 5일에는 환영회가 공식행사의 전부였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6일과 7일 이틀동안 진행되었다. 기조연설과 각 도시 대표들의 사례발표, 그리고 서울선언문 채택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중심행사로 열렸고, 그 외에 27개의 개별 세션이 열렸다. 개별 세션의 주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사회적경제와 지역혁신,

1) 이 외 참석 도시로는 일본 교토시와 요코하마시, 필리핀 퀘존시가 있었으며, 참석 민간단체로는 칼 폴라니 연구소, 소셜트레이더스(Social Traders), 그룹에스오에스(Groupe SOS), 홍콩사회서비스연합회(HKCSS), 아시아벤처기부네트워크(AVPN, 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케이투인터내셔널그룹(K2 International Group)이 있었다. 국제기구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내에서 영리와 비영리의 협력 등 거시적 차원도 있었고,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교육과 금융 분야에 대한 것도 있었으며, 도시농업, 에너지, 패션, 주거, 동물 등 매우 구체적인 지점들도 있었다.

6일 아침, 포럼의 첫 번째 기조연설은 마거릿 멘델(Marguerite Mendell) 칼 플라니 연구소 소장이 ‘사회적경제의 도시재개발적 역할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었다. 멘델 소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시도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국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은 지난 1년 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 전환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결정체이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과정을 고민할 때 패러다임의 전환을 누릴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경제와 환경, 민주주의의 위기는 가치의 위기이다.”, “위기를 겪은 많은 도시들이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주의와 포용적인 부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 덕분에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르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고 사회적경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가 환경문제, 식량문제, 청년문제 뿐 아니라 도시의 성장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르지니오 메롤라(Virginio Merola) 볼로냐시장의 연설이 계속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와플대학협동조합, 공유기업 열린옷장, 논골실험, 공동주택 우주, 사회적기업 소풍가는고양이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것들이 서울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의미있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메롤라 볼로냐시장은 “볼로냐의 대기업 10개 중 6개가 협동조합이며, 에밀리아 로마냐주 시민 12명 중 1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소개하며 볼로냐의 중요한 문제는 “삶에 있어 균형을 찾는 것”이었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일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 삶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경제는 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일한다는 것”이며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기조연설의 주인공은 낸시 님탄(Nancy Neamtan) 샹티에 의장과 제스 스틸(Jess Steele) 로컬리티 지역조직국장이었다. 님탄 의장은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

제의 중추적 인물로, 1996년 퀘벡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던 중 샹티에를 만든 이후부터 지금까지 샹티에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부터 지역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그는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이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운동을 만들어왔다고 밝히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체가 만든 기구가 보건, 주택, 교육 등의 부분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했고 이것이 경제 개발로 귀결됐다.” 그렇다면 퀘벡 사회적경제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그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노력했다는 것”이며, “사회를 통합시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제 활동 안에 녹여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정부는 문제 해결을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단체도 정부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혁신의 중추로서 현장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퀘벡의 성과는 올해 10월 10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정점을 찍었다고 한다. 그는 강력한 사회적경제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하며, “공동의 가치와 패러다임 전환의 욕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틸 조직국장님은 지역이 갖고 있는 사람, 땅과 건물, 복지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변화를 만들고 있는 로컬리티의 호라동을 소개하였다. 지역의 버려진 공간들을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관리하여 변화의 기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한 예로 버려져있던 헤이스팅스 항구, 런던의 소방서 건물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공간으로 바뀌었는지를 소개했다. 이러한 공동체의 자산 소유 방식이 최근에는 더욱 발전하여 공동체가 주민들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공동체 수당(Community Allowance) 또한 시도되고 있으며, 이것이 복지담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힘은 지역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공통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매일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기조연설들은 모두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새로운 방식이나 형태의 경제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한다. 기조연설을 했던 퀘벡, 볼로냐, 런던 외에 홍콩과 필리핀 등에서도 사회적경제가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었는지를 사례발표를 통해 보여주었다. 경제에 사회를 집어넣으려는 시도, 혹은 사회에 경제를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세션 중에서는 특히 주거, 에너지, 동물 등 시민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개별 세션들에 많은 참가자들이 몰렸다. 그 외에 퀘벡과 볼로냐의 사례를 들 수 있는 세션, 협동조합 활성화를 주제로 아이쿱과 레가코프가 준비한 세션에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기조연설과 다양한 세션이 담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참가자들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현재의 세계적 경제 위기가 “시장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규제없는 금융세계화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며, 그래서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존엄성을 회복”하며,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며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토대” 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며, 구체적으로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 경험과 비전의 공유, 발전모델의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제 포럼은 여러 도시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대안으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운동’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6일과 7일 이틀 동안 포럼에 다녀간 이들이 1000명에 달하며, 특히 완주, 충남, 제주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많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한국사회에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번 포럼이 참가자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이 사회적경제 운동의 한 주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하게 해준데 있지 않을까 싶다.

* 국제 포럼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문과 주요 인사들의 발표문을 첨부합니다.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식 발표한 글에서 번역 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첨부1.

서울 선언문

세계의 위기와 사회적 경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위기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 아시아 및 신흥경제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시장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규제 없는 금융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는 종종 사회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기후온난화, 생물 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량 위기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 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운동” 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 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적 경제는 왜 중요한가?

사회적 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영리기업 제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한다. 물론, 자선단체와 사회투자부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룰 때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과 보육, 보건과 돌봄서비스 등 관계재를 공급하는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경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형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그 동안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사회 구성원의 협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로컬푸드운동,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해 왔다. 생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국제협약 가입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세계와 나라의 여러 제도와 결합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토대이다. 사회적 경제에 내재해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며 연대와 지속가능성의 정신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개인의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향하여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지역공동체와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한 사회 경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이며, 전세계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이다.

본 포럼은 세계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전을 다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각 지방정부는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2. 우리 모두는 시민 권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적 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동체 리더십을 지지한다.
3.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상이한 집단을 위해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4.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표준적인 교과서와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량을 증진시킬 것이다.
5. 우리 모두는 사회혁신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 간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6.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기타 소통수단을 통해 사회적 경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한다. 각 도시 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7.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을 개발한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 연합체와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9. 우리 모두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감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0.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 단체와 노동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적경제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협의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 임시 사무국을 만들어 2014년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든 참여자는 2014년 총회에서 주최 도시 선정, 사업 확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

11월 5~7일 서울에서 모임

본 선언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

첨부2.

기조강연 : 사회적경제의 도시재개발적 역할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마거릿 멘델 칼폴라니 연구소장

2013.11.6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이 열린 것을 환영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사회적경제가 국제적으로 더욱 더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포럼을 기회로 해서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를 준 박 시장께 감사드리고, 포럼 개최를 위해 몇 개월간 노력한 분들께 퀘벡과 몬트리올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퀘벡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지난 몇 년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2009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 이후로 사회적기업들이 분야별로 계속 발전하고, 사회적경제가 변화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조직과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사회적경제가 한국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의 의식이 한국에서 고취되어가는 데는 서울시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올 봄에 UN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고, 지난 9월에는 어떻게 하면 사회와 경제가 함께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UN에서 권고사항이 발표되었는데, 연대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도 600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와 연대 포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퀘벡주 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올해 포르투갈이 같은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세계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시도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글로벌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우리가 겪었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에 큰 파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도 많은 세션들이 있을 텐데, 사회의 여러 부문들이



사회적경제라는 큰 목표에 동의할 때 융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유럽연합(EU)은 14개 유엔 산하 기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시민사회와 조직, 환경 등 여러 부문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퀘벡과 서울은 사회적경제를 위한 제도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과정을 고민할 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는 많은 연합체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회적인 가치 창출로 연결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기업, 조직, 연합체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합니다. 정부의 정책 입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혁신, 법적 토대가 필요하고 민주적 정부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해당사자들도 헌신해야 합니다. 유엔 산하 기관들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회적경제와의 연대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조직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경제와 환경, 민주주의의 위기는 가치의 위기입니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위기를 겪은 많은 도시들이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포용적인 부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 덕분에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북미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관 협력 포럼 등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국제적 개발 아젠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면 도시 정부들과 공동체들은 포용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법적인 형태, 정책적인 발전 등을 고민하고,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일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은 없습니다. 물론 정책마다 목적과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더라도 다양성을 띠고 달려야 합니다. 특히 이 목표가 사회적경제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협력을 통해 포용적 경제 만들어 나가고 소비와 생산이 통합된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내에서 일어나는 비금전적 활동은 사회적경제의 능력과 역량을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경제 부문의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도 조직과 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고 경계를 넘어 협력할 때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와 사회적 목표를 서로 떼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하지만 도시는 빈곤, 실업, 소외 때문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협업이 필요하고 새로운 전략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을 제거하고 이제는 도시가 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와 같은 포럼이 새로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력의 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성장은 대체에너지 개발, 환경문제 해결 등의 긍정적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UN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에서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도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원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면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부문을 넘어서는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도시 정부들은 다양한 정책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들은 사회적경제를 중시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해 서울과 충남이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여개의 시정부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IT, 제조업, 폐기물 재활용 정책 등에서도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돌봄, 보육 등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덕분에 식량주권과 안전, 농산물 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전자기기를 다루는 데 능하고 새로운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를 하자는 운동도 확산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 협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퀘벡은 사회 혁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개방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사회적경제 부문의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부문으로 활동을 넓혀가기 위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자금을 마련하고, 필요한 수단을 지원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기관과 조직들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상티에 등 민간 기관들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필요를 충족해 가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는 200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6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합니다. 부가가치로 보면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합니다. 80%가 사회적기업이고 20%가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경제는 도시 전체의 성장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정부는 조달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협업 체들을 더 창출할 수 있나 고민이 한창이고 이 중에서 혁신적인 전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시가 몬트리올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사회적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피츠버그, 아마릴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공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국영은행도 동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리오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도시 재개발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를 비롯한 전 세계 시정부에도 영감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도시재개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은 모두가 고민해야 합니다. 제도적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국 시민사회와 지자체 역할, 수평적인 연계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체되어서는 안 되며, 역동적인 시민그룹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가진 생동감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시민단체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오늘의 이 국제사회적경제포럼과 같은 연대의 장, 교류의 장이 이어질 때 사회적경제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도시들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

사례발표 : 사회적경제를 통한 서울혁신의 현황과 발전모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3.11.6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또 믿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극복하고 함께 일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멘델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통해 제 믿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사회적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플대학협동조합입니다. 시작은 작았습니다. 손종희 대표는 사업을 실패하고 이 와플가게를 어렵게 창업했습니다. 완벽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를 주변의 노점들과 공유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와플대학으로 만든 것입니다. 혼자 팔았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공유한 것입니다. 와플대학은 지난 3월 서울시의 159호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손 대표가 레시피를 공유하기로 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시피를 공유했어도 손님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할인받을 수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많은 와플가게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행복해지겠느냐, 아니면 존엄성을 잃으면서 다른 이의 것을 뺏겠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열린옷장’ 이라는 공유기업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 딸의 결혼식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은 아버지들을 위해 정장을 공유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들으면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서울은 파리보다도 세대별 자동차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작 6개월 만에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었고, 만족도 조사에서 89%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데 성과를 낸 것은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서울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서 생산하는 200만 TOE 만큼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면 원전 하나를 없애는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정책적 목표는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이 7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논골신협’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서울의 금호동, 행당동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됐고 집을 잃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야 했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리의 사채밖에는 빌릴 돈이 없었습니다. 이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1000원, 2000원씩 3년 걸려서 돈을 모아서 논골신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합원이 4000명이고 자산이 250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은 안정적인 주거 문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이라는 것은 머리 위에 있는 지붕 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한 청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2만 3000명의 청년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우주’는 이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을 빌려서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는 우주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금까지 8채의 우주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한 채 한 채 볼 때마다 기쁨을 느낍니다.

‘소풍가는 고양이’는 학교를 중퇴했거나 보육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직원입니다. 이들이 이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중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의미있는 해법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정부 중심의 기관이 아니고 서울시와 민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골손님이 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올해 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3조6000억원 규모를 구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각종 박람회와 장터 등을 통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것들을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울의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성을 지녀야 합니다. 서울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소셜 임팩트 본드’를 만들었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임팩트 투자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입니다. 행복의 공식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도전 과제에 대한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차이를 극복하면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우리가 함께 꾸고 있는 이 꿈이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4.

사례발표 : 사회적경제를 통한 볼로냐혁신의 현황과 발전모델

비르지니오 메롤라 볼로냐시장

2013.11.6

도시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도시는 삶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볼로냐는 정치·사회·환경·기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볼로냐시가 주목하는 것은 삶에 있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노년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이 필요합니다. 남녀 평등과 세대간 화합으로 도시의 균형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의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투자와 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개인이자 노동자, 직원으로서의 여러 모습의 삶이 필요합니다. 독립적, 자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 권위가 있는 도시, 민주적 도시를 우리는 지향합니다. 특히 우리는 도시에서의 민주적인 생활은 사회적경제에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경제와 시민 경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 농부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각자가 삶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볼로냐에서는 오래전부터 협동조합이 탄생했고 무엇보다 수공업자들의 연합체, 수공업 협동조합이 세계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들은 자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헌법도 협동조합의 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도 협동조합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조합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독립성은



밑에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시장 사이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과 민간 조직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의 참여는 시장에서든, 국가 서비스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책임감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시민들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시민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힘을 합쳐서 조직을 만들어 가면 도시 내 인프라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은 복지의 성장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융합이 필요하고 응집이 필요합니다. 통합 속에서 같이 발전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득도 지속돼야 하며 사회적인 통합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는 경제적 위기가 높아지고 실업률 높아질 때 더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능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헤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정부는 도와야 합니다. 물론 빈곤은 당사자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연대해야 합니다. 즉, 이기적인 개인을 강조하는 것과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적이면서도 책임감을 가진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들은 반드시 사회적 응집에 동참해야 합니다.

볼로냐는 이탈리아 중북부에 위치한 100만 인구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의 주도인데, 국민생산 3만 1000유로의 부유한 도시입니다. 경쟁력과 응집력 가진 도시입니다. 볼로냐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업 많이 존재합니다. 자동화기계 측면에서 전 세계적 리더 위치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산업은 협동조합 기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볼로냐 대기업 10개 중 6개가 협동조합입니다. 또 에밀리아로마냐주에서는 시민 2명 중 1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 모델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에서의 협동이라는 모델은 융합을 가져왔고 대형 협동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형 협동조합은 단지 작은 대안적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영

업해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볼로냐에는 협회와 사회적기업 숫자도 많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이 강조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은 지역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업들은 지역 공동체와의 융합을 지향합니다. 기업 내 직원 어린이집은 직원들뿐 아니라 지역 유아들까지 같이 돌봅니다. 지자체는 기업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체육관, 체육시설 마련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저희가 해 온 사회적경제의 발전 현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일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지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문화적 전통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줍니다. 서로 간에 다른 분야일지라도 순환적으로 보완하면서 일합니다. 이런 전통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에 도움 주는 여러 법이나 규정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통해서 경제와 삶의 변화가 이뤄져 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여전히 많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전통적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주목하는 것은 고령화입니다. 고령자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공공 정책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공동체의 복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서야 고려의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 그들에게도 생산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경제적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볼로냐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할 때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과 같이 세계에 사회적경제를 위한 관심과 노력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기업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젊은이를 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경제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가게도 많이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게들을 통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 과정을 변화시키고 소셜네트워크를 생성해서 새로운 경제·문화·사회적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시민들이 만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2014~2015년 사이에 볼로냐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맞습니다. 2014년 볼로냐는 60개 분리된 지역단체가 지역정부 단위로 구성될 것입니다. 2015년 밀라노 엑스포도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5.

기조강연 : 지역 사회적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적 협동 - 퀘벡의 교훈

낸시 님탄 상티에 의장

2013.11.7

이렇게 훌륭한 청중 앞에서 말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1983년 저는 지역 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30년 후에 서울시장님이 저를 초대해서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제안을 받고 놀랍고도 기뻐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사회적경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논의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퀘벡의 경험을 요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에는 차이점이 있고, 다른 국가와 도시들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모인 도시들에는 공통의 요소가 더 많고 봅니다. 물리적 거리와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하는 요소는 바로 '삶의 질을 높여 보자'는 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보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꿈은 아닙니다. 아주 공고하고 실질적인 해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연대의 경제, 신경제,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이는 시민들이 실제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들입니다. 기업과 사회, 경제, 환경 운동이 하나로 통합돼서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민주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와 국가를 보더라도 이 사회적경제 개념이 발전돼 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연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참 겸허한 마음이 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회가 주어졌으니 몇 분간 지난 30년간 퀘벡의 경험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퀘벡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북미 국가들은 영어를 쓰는데 우리 퀘벡은 프랑스어를 주로 씁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민 사이의 협업, 협력의 정치 문화가 만들어 졌습니다. 같

등도 있었지만 서로 수용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96년, 부채와 실업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우리는 사회를 지탱할 인프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노조, 문화 단체 등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일자리를 만들고 부흥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끌고 있는 상티에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퀘벡에는 특수한 배경이 있습니다. 데자르탱이라는 1900년에 만들어진 금융협동조합입니다. 퀘벡이 유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1970년대 퀘벡에서는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했고, NPO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많은 NPO들이 지역사회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문제는 협동조합, NPO, 연합회 등 다양한 기구들이 다 따로따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살아남기 위해 주류 경제에 편승하는 것이 단기적 목표였을 뿐 장기적인 비전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가 닥치고 영속적 번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그 때 저와 동료들은 가난한 공동체에서 일했는데 시장경제의 방법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경제가 발전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고립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에 대해 많은 사회 활동가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경제발전은 사회 활동가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저항을 위한 것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할 경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며 일했습니다. 노조와도 일했고, 기업가들 정치가들과 일하면서 제도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우리만이 아닙니다.

퀘벡에는 공동체가 만든 기구가 보건, 주택, 교육 등 부분에서 사람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했고 이것이 경제 개발로 귀결됐습니다. 현재 비영리조직들과 많은 공동체 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이 이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문화 교육기관과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경제개발공사(CDECs)등을 통해서입니다. 이곳은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모든 기업을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방 정부가 이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퀘벡의 큰 변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변화입니다.

퀘벡 노동자의 40%가 연기금 펀드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노조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경제 발전에 참여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사회 참여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혔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힘은 확실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사회금융 등이 경제에 적극 참여해서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장점까지 가집니다. 저렴한 가격에 보육, 홈케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 단체들이 생겨 삶의 질이 나아졌고 7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삶과 밀접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사회적경제가 인정받고 비영리와 협동조합이 번영해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를 포괄하는 대안적인 운동,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재활용, 관광, 장애인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해 왔습니다.

이 같은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통합시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제 활동 안에 녹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더 큰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 단위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는 정책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조, 혁신적인 투자구조, R&D, 파트너십, 국제교류,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등을 핵심 정책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경제 기구들과 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인 소외,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도서지역 활성화 등 문제 해결을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혁신의 중추 역할을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수단 통해서 공공부분과 함께 일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퀘벡의 성공 핵심 요소입니다. 샹티에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 교육, 마케팅, 정부의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연구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성공 경험의 전파를 고민하는 동시에 프랑스의 교육제도, 페루의 콜렉티브 키친, 이탈리아 협동조합, 일본 의료생협, 네팔 공공임업 등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퀘벡 정부의 협력은 지난 10월 10일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의

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주 정부가 제안을 했고, 사회적경제를 오래 지원한 주 의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새로운 법은 사회적경제가 퀘벡에 기여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새 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경제 개발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 것입니다. 공공조달 뿐만 아니라 자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당히 큰 진전입니다. 매일 노력해 왔던 시민들이 맺은 결실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 개발은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전이 있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멍니다. 시장의 역할을 인정은 하지만 지배받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필요와 열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경제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통합될 수 있는 공동의 가치와 패러다임 전환의 욕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국제사회적경제포럼에 모인 우리도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은 가능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 중심의 경제’가 진정한 사회 연대 경제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한 조각 한 조각 움직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 국제 아젠다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